



스마트축소를 위한 경기도 역세권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역세권은 첨예한 용적률 상승과 복합화, 입체화 과정을 거쳐 빠르게 변화해 온 도시개발 과정의 총체적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앞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인 장소에 분배하는 것은 앞으로의 도시계획 전략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역세권의 개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결핍에 주목하여 역세권에 무엇을 보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것인지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할 시설들을 결정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스마트 축소는 2010년대 이후 축소도시 연구의 최근 경향에서 언급되고 있는 도시전략으로서 과잉공급된 토지를 관리하는 것부터 빈집 및 유휴공간 관리, 불필요한 과잉공급 자원을 정비하고 미래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재정비하는 전략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스마트 축소전략을 역세권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역세권은 이러한 미래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도시의 핵심적인 자원이며 개발이득과 관련한 많은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한정된 자원을 최적의 입지에 공급하는 스마트 축소전략을 검토하고 이러한 전략을 역세권의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하기 위하여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역세권의 유형을 지역 레벨과 역세권 레벨로 유형분류를 실시하였다. 지역 레벨로는 쇠퇴도를 측정하는 인구, 산업체, 건축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역세권의 경우는 유동 인구를 포함하여 주변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 6개 클러스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역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역세권의 유형별 스마트 축소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